

윤선도·정약용 낳은 해남·강진, 인물·관광 마케팅 '맞손'

2개 지자체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공모사업 협업 '남도관광 1번지' 구축

윤선도·정약용 관련 자연·문화·역사·예술 등 관광 패키지 상품 개발 착수

해남 윤선도와 강진 정약용이 손을 맞잡고 패키지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남도관광 1번지'를 구축한다.

1일 해남군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30일 해남고산윤선도유적지 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주관 '2020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공모사업'에 대비한 실무회의를 가졌다.

이 사업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에 지역특화·문화콘텐츠 등 소프트웨어를 융·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다.

주관 부처인 국토부는 2개 지자체가 연계해 체류형 패키지 콘텐츠를 관광자원화할 경우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강진군은 지난 10일 해남군에 '지자체 연계 공모사업' 신청 논의를 제안했고, 두 지자체는 다산 정약용과 고산 윤선도 등 인물 중심의 관광 패키지 상품 개발에 착수했다.

해남의 대표인물은 고산 윤선도이고, 강진의 대표인물은 다산 정약용이다. 이들은 한 집안이다. 윤선도의 증손이 공재 윤두서이고, 윤두서의 외증손이 정약용이다. 정약용의 어머니가 해남윤씨로 윤두서의 손녀여서, 정약용은 곧 윤선도의 후손이 된다.

해남은 고산 윤선도의 고향이다. 조선중기 문신이자 시인으로 정철·박인로와 더불어 조선 3대 시가인(詩歌人)으로 꼽히는 윤선도는 당대 문단에 우리글로 아름답고 독창적인 시를 발표하며 국문학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

그의 증손 윤두서는 국보 240호 '자화상'의 주인공으로, 조선 후기 '풍속화'의 선구자다. 그가 남긴 고간 그림들은 반세기 지나 단원 김홍도, 혜원 신윤복으로 승화됐다.

강진으로 유배 온 다산 정약용은 친가보다 외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외가인 녹우당은 해남윤씨 종가로, 집안에 만권당이라는 장서각이 있었다. 그 곳에는 1만여권의 서적이 비치돼 있어, 다산이



해남군과 강진군이 협업을 통해 국토부 주관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공모사업'에 2개 지자체 연계 체류형 패키지 콘텐츠를 개발, 응모하기로 했다. (해남군 제공)

유배에서 풀려날 때까지 18년간 학문에 몰두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 그래서 정약용도 외가에 대해 "나의 정분(精分)은 대부분 외가의 혈통에서 받았다"라고 했다. 다산은 '한국의 다성(茶聖)'이라 추앙받는 초의선사와 인연을 맺었고, 초의는 추사 김정희와 막역했다.

모두가 해남·강진이 낳은 인물들이다.

해남군과 강진군은 '자연, 역사, 예술, 문화, 차, 인물, 먹거리, 길'이라는 핵심 키워드 8가지를 도출해 서로 연계할 경우 체류형 관광 브랜드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자체 연계 공모사업'에 도전하는 이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지자체별로 국비 20억원씩 지원된다. 해남군은 고산윤선도 유적지 일원에

정원 조성, 강진군은 다산유적지 기반시설을 추진해 광역단위 관광프로그램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공모사업은 이달 전남도 1차 심사를 거쳐 5월 국토부 서면평가, 6월 종합평가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완도군, 해양인명구조 전문인력 양성 나서

전남도 공모사업 선정

완도군은 해양인명구조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올해 전남형 동행 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전남형 동행 일자리 사업은 전남도와 사군이 교육, 취업 연계, 창업 지원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최적화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완도군은 지난 2월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산업의 본격 추진과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에 따른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를 앞두고 해양인명구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공모에 참여, 최종 선정됐다.

사업 수행은 해양구조단 완도지역대가 맡고, 사업비는 총 6600만원이다.

해양인명구조 전문인력 양성은 미취업자나 창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이달까지 20명을 모집, 과장별 10일 총 160시간의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 수료 후 자격증을 취득하면 해양경찰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고, 해수욕장·위더파크·수영장 등 레저시설 취업, 스킨스쿠버 강사로 일할 수 있다. 스킨스쿠버 교육 체험장, 스킨스쿠버 승용 수상레저 분야 창업도 가능하다.

해양치유산업이 본격 추진되면 완도를 찾는 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해수욕장 등의 안전을 책임질 전문 인명구조요원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공모에서 완도군 해양인명구조 인력양성 사업이 선정됐다. 사진은 스킨스쿠버 교육. (완도군 제공)

완도군, 기관장 회의도 카톡으로 '눈길'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모바일 메신저 이용 첫 시도

완도지역 40개 유관기관 대표들이 참여하는 완도군 유관기관장 회의가 '카톡 회의'로 진행됐다.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하고자 회의 운영 방식을 바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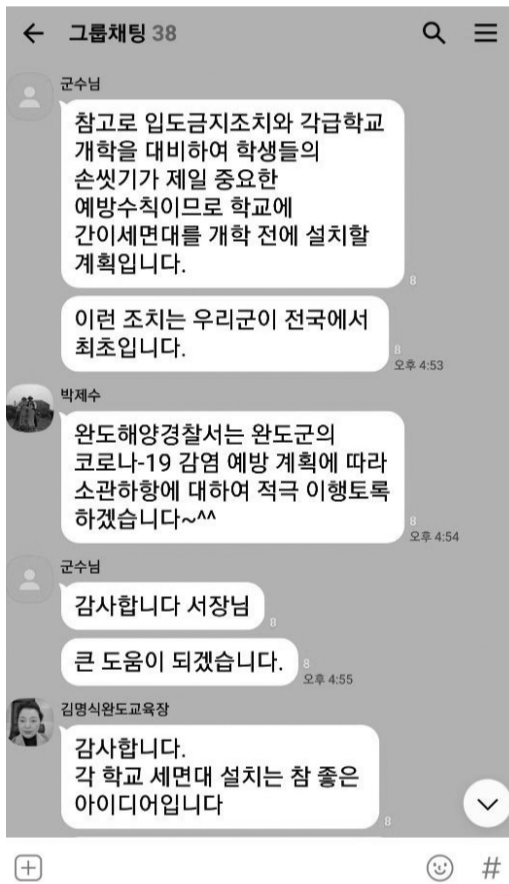
1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6일 지역 40개 유관기관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모바일 메신저서비스(카카오톡)를 이용한 회의를 처음 시도했다.

이는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회의 대신 영상 또는 서면으로 진행하도록 한 정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영상회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완도지역의 현실을 감안해 단체 채팅방을 개설, 메신저 회의를 진행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날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 유관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5일까지 2주간 지역 간 이동(관외 출타) 전면 금지 조치 이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동참, 지역경제 살리기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카톡회의에 참석한 기관장들은 "이렇게 진행된 회의는 처음"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대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바일 메신저 회의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각 기관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해남군, 지속가능 축산업 기반 구축 올해 '깨끗한 축산농장' 28곳 지정

해남군은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제'를 적극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자발적으로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가축분뇨를 신속·적절하게 처리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이끄는 축산농가에게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해주는 제도다.

해남지역에는 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현재 35개 농장이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올해 읍·면 별로 2곳씩 총 28개소의 추가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는 해남군과 정부에서 시행하는 축산정책사업에 가점을 부여받아 가축분뇨처리사업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 축종은 소, 돼지, 닭, 오리이며 축산업 허가 및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를 받은 농가가 신청할 수 있다. 희망 농가는 농장소재지 읍·면에서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서류심사 및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점검,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다.

해남군은 매월 두번째 수요일을 '축산환경 개선의 날'로 정해 축산농가 스스로 대청소·소독을 실시, 가축질병 예방과 쾌적한 축사 만들기를 독려하고 있다. 또 축사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일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 분뇨 발효용 미생물제·악취 탈취제 등 악취저감제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광주 전남 전북

200베드 이상 요양병원 매도·매수

광주 · 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 · 임대 · 급매 전문 / 경 · 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